

우리나라 袍의 類型 및 源流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이 해 영
 수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김 문 자

目 次

I. 序論	III. 袍의 源流
II. 袍의 類型	IV. 結論
1. 袍의 概念	參考文獻
2. 袍의 形態	

I. 序 論

복식 문화는 다른 문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의 계속적인 관련에 의하여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전승된다. 원래 복식은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자연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그 시대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각 나라의 복식은 그 나라의 독특한 유형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복식을 연구할 때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一次的인 문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은 복식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전문 용어에 대한 개념의 설정과 복식에 관한 형태이다. 이와같은 사정하에서 한국 복식가운데 袍에 대한 개념 규정은 그간의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袍는 상고시대로부터 있어 온 우리의 복식 문화에서 襦, 袴, 裳과 더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복식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袍에 있어서 袍의 개념 및 형태를 살표봄으로서 우리나라 固有袍의 類型의 源流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자

료로는 문헌을 중심으로 회화등을 이용하였으며 자료를 구하기 곤란한 것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재인용하였다.

II. 袍의 類型

1. 袍의 概念

우리나라 上代의 古記錄에 '袍'라는 말은 보이지만 어떤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袍라는 개념은 중국에서 온 말¹⁾로 袍에 대한 기록²⁾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方言」四, 褒明謂之袍 (注)褒明長襦也

「廣雅」釋器, 袍長襦也

즉 袍는 「方言」「廣雅」에는 긴저고리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釋名」에는 男女가 입은 발목까지 닿는 긴 옷이며 衣와 裳이 붙어 緣이 있는 옷으로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說文」「爾雅」「禮記」「孫希旦集解」에는 숨을 넣어서 만든 옷으로 설명되어 있다.

「釋名」釋衣服, 袍丈夫著下至跗者也袍苞也 苞內衣也婦人以絳作衣裳上下連四起施緣亦曰袍義亦然也.

「說文」 袍襦也 衣包聲論語曰衣敝緇袍

「孫希旦集解」 續與緇皆漬繭擘之新而美者爲
續惡而舊者曰緇衣以緇著之者謂之袍

그리고 「禮記」에는 일상적으로 입는 평상복의 겹옷
으로 기술되어 있고 「集韻」 「公羊」에는 단순히 옷앞
의 깃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풀이되고 있다.

「禮記」 喪服大記, 袍必有不禪(注) 袍褻衣

「集韻」 袍衣前襟

「公羊」 哀十四, 反袂拭面涕沾袍(注) 袍衣前
襟也.

이와같이 중국의 袍는 긴 저고리, 남녀가 입은
발목까지 닿는 긴옷, 衣와 裳이 붙어緣이 있는 옷,
숨을 넣어서 만든 옷, 평상복의 겹옷, 그리고 옷
앞의 깃등으로 다양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왕우청은 중국의 복장을 頭衣, 上衣, 下衣 및 脛足
衣로 分類하고 上衣를 衫, 襦, 禪, 襜褕, 袷, 袍 등으
로서 이를 다음과같이 설명하고 있다.³⁾

衫은 짧은 옷옷의 홑옷을 말하고 襦는 짧은 옷옷
의 겹옷을 가르키며 禪는 짧은 옷옷의 숨을 둔 것을
지칭한다.

「方言」에 今或呼衫爲禪襦...禪襦即衫也라하여
衫은 禪襦라고도 하며 禪襦는 衫이다. 즉 禪襦는
홑저고리이므로 衫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적삼도
홑저고리이다.

그리고 短上衣를 '單曰小衫來曰來襦綿一棉襦'
라고도 하여 短上衣는 무릎이상의 길이로 여러가지
上衣의 祖型이 된다. 衫, 襦, 禪, 袍는 衣와 裳으로
나누지 않은 긴 上衣로 長衣이다. 長衣는 無著, 有
著, 單, 複의 차이가 있다. 즉 無著는 숨이 들어 있지
않은 것, 有著는 숨이 들어 있는 것, 單은 홑으로
된것, 服은 겹으로 된 것들이다. 禪衣는 안감이 없는
홑옷으로서 內衣 中衣 外衣등으로 사용되었다. 褻유
는 衣와 裳이 서로 떨어지지 않음에 근거를 둔 것으
로 단에 비교해서 넓다 褻유는 원래 單의의 一種이
었다. 褻유의 특징으로 大袂直裾의 長衣으로서 絲織
毛織 獸皮로 만든다. 그리고 褻유의 襟의 부분은
垂直모양이므로 對襟의 合襟袍로 생각된다.

뒤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이 合襟의 형식은 카프탄
(caftan)으로 褻유는 카프탄 유형의 袍가 아닌가
한다. 袷은 겹옷으로서 袷은 夾이라고도 하며 袷은
단과 袍의 中間정도의 옷으로 홑옷인 단에 비하여

겹으로서 안을 바친 袍와 같은 것이다. 袍는 有著의
長衣로 夾裏로서 바느질하여 안감을 두어 안에 숨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長衣 형태의 긴 옷옷은 여러가
지로 변화되었고 單袍, 夾袍, 皮袍(獸皮:裘), 棉袍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袍'라고 부른
다. 以上에서 다양한 上衣는 秦·漢代以前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常服이었다. 長衣는 '不殊衣裳'
으로 衣와 裳을 구분하여 나누지 않은 옷이고, '連綴
衣裳'은 衣와 裳을 나누어 재단하고 다시 하나로
연결하여 붙인 것으로서 深衣라고 한다. 또한 上下
를 바로 붙여서 衣와 裳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을
通裁라 하고 通裁형식의 長袍의 始初가 深衣라고
하였다. 즉 중국의 袍의 始源이 深衣에 두고 袍類가
禮服用으로 착용하게 된 것도 深衣에 두고 있다.
深衣는 周末경부터 착용되었다고 하며 上衣下裳과
함께 始源이 가장 오래된 中國 固有의 服飾이다.
이것은 위로는 天子로부터 밑으로는 庶人에 이르기
까지 上下貴賤의 구별이 없이 通用되었다. 그리고
긴 상의의 袍를 옛부터 매우 넓게 만들어 입었으며
後漢以後에는 이와같은 袍가 朝服이 되었다. 또
袍나 衫만으로는 禮服이 될 수 없고 그 위에 반드시
짧은 衣와 裳을 입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古代 中國의 袍制는 주로 防寒등의 실용
적인 목적을 위하여 착용되다가 後漢以後에 들어와
서 袍로서 朝服을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袍의
착용용도가 儀禮的인 것으로 변해가면서 점차로
겉옷을 통칭하는 表衣의 대명사로서 外延의 概念으
로 바뀌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古代 記錄에도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닐까 한다.

2. 袍의 形態

服飾에서 形態는 복식을 이루는 조형요소중의
하나로, 형태는 복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동시에 가시적이고 지각되는 구체적인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服飾의 형태는 역사의 흐름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며 형태는 복식에 있어서 외형상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유형(type)과 재단(cut)의 측면⁴⁾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복식의 構造的인
특징을 가르키며 이 구조적인 특징은 服裝類型과
관련이 있어 그 다양한 복식의 형태를 세계의 복식
학자들은 그 특성의 초점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학자들은 대부분 袍를 카프탄 형식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카프탄⁶⁾(Caftan · Kaftan 英, Cafetan佛)의 語源은 페루시아에서 온 터어키어의 'Gaftân'이다. 카프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남자들이 입을 풍성하고 길이가 긴 여유있는 의복에 기원을 두고 있다. 카프탄의 특징은 앞이 切開되어 앞에서 여미는 의복의 총칭으로 거의 직선 재단으로 구성하고 길이가 길으며 소매는 넓은 소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한센(Hansen)은 몽고복식(Mongol Costume)에서 몽고를 비롯하여 한국, 일본, 투란(Turan), 티벳(Tibet), 동투르키스탄(East-Turkestan) 등 동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복식을 카프탄이라고 명명⁷⁾하고 있다. 한국, 일본, 동투르키스탄, 중국의 袍(圖1)에서 보면 유형의 큰 범주안에서는 카프탄의 공통점이 앞이 切開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깃의 형태, 여미는 방법, 소매폭의 넓이와 구성⁸⁾ 그리고 무의 有無등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옷깃의 형태와 여미는 방법은 복식의 계통을 세우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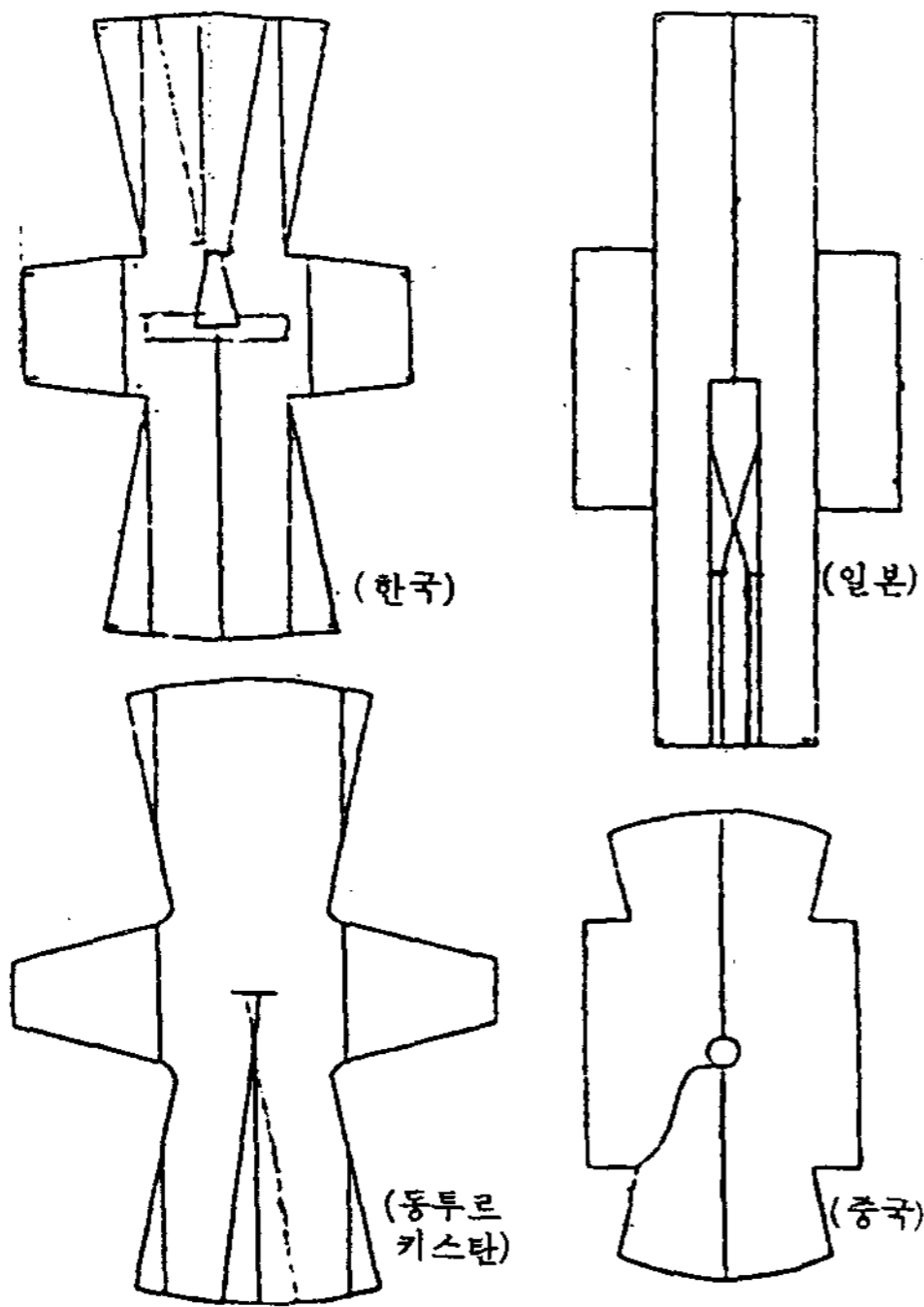


圖1. 한국, 일본, 동투르키스탄, 중국의 袍⁹⁾
출처 : Mongol Costumes

1) 옷깃의 형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옷깃은 목둘레에 둘러 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이고 여밈은 의복에 있어서 트임이 포개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는 목부분으로 옛부터 인체 장식의 주요한 부분으로 되어 왔다. 즉 頸部의 장식에 있어서 그 표현과 정서는 인체의 전장식의 초점이 되며 통일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옷깃의 개념은 목주위를 둘러 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을 지칭한다. 옷깃을 나타내는 漢字로 襟, 衿 領이 있다.⁹⁾ 襟은 「爾雅」에 '衣皆謂之襟'으로 옷의 先端을 가르키고 「釋名」에는 '襟禁也交於前所以禁禦風寒也'로 風寒을 막기 위해 옷앞에 열린 부분을 여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衿은 「詩經」「說文」「爾雅」등에는 끈(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禮記」에는 묶는다는 의미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같은 「詩經」중에도 「鄭風」에는 '青青子衿悠悠我心'로 「毛傳」의 注釋에 의해 '青襟青領也'로서 옷깃의 의미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이 漢代에 내려오면 「方言」에 '衿謂之交衣交領也'로 衣服의 앞에 교차되는 부분을 지시하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6세기경에는 「顏氏家訓」에 '領下連于衿'으로 목둘레만이 領이고 領에 붙어 이어진 앞 옷깃을 衿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이 같은 文字도 시대에 의해 그 의미가 변하는데 중국의 古代 문헌에서는 衿의 문자가 옷깃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많지 않다. 領은 중국의 문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領은 본래 項 즉 頸을 의미하는 文字였다. 또한 「釋名」에는 '領頸也以壅頸也亦言總領衣體爲端首也'로 頸의 의미로부터 목둘레를 두르는 부분으로 轉用되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깃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直領 垂領 交領 方領 曲領 盤領 團領 圓領 翻領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깃의 파여진 모양에 따라서 부쳐진 이름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둥근 깃의 파임의 정도에 따라서 曲領 團領 盤領 圓領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대에 따른 용어 사용의 차이이다. 중국에서는 「大明會典」의 天子常服圖의 깃과 「三才圖會」의 群臣冠服圖의 깃은 盤領으로서, 그리고 團領과 圓領을 같은 領으로 설명하였으며¹⁰⁾ 「大明會典」의 群臣服의 옷깃은 團領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깃의 모양이나 파임의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原田淑人¹¹⁾ 王宇清¹²⁾ 沈從文¹³⁾ 등은 파임의 정도에 관계없이 曲領 盤領 團領 圓領 등으로 표현하였다. 즉 曲領 盤領 團領 圓領 등은 목이 둥글게 파여져 모양이 둥글게 되어 있는 깃의 형태라 할 수 있다.

方領은 각이 진 네모모양의 깃이고 交領은 領이 겹쳐짐을 볼 수 있으며 垂領은 겹쳐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翻領은 反襟袍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제쳐진 깃의 형태이다.(圖2)



圖2. 方領, 交領, 垂領, 翻領
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이와같이 領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領의 형태는 直領과 團領으로 대별된다고 하겠다. 한편 直領은 우리나라 便服袍에서 볼 수 있는 깃의 형태로 깃이 직선 그대로이고 사선이면서 곧은 領으로 直領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2) 여밈의 방법

여밈이란 의복에 있어서 트임이 포개지는 것을 말한다. 이 여밈의 종류는 옷깃이 왼쪽 가슴위에서 여며지는 좌임과 옷깃이 오른쪽 가슴위에서 여며지게 되는 우임 그리고 옷깃이 가슴 앞부분에서 마주

여며지는 合襟등 세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밈의 포개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고리나 便服袍의 경우처럼 겹쳐지는 부분이 적당히 겹쳐지는 상태와 중국의 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부분을 대부분 감싸 겹쳐지든가 혹은 앞면 전부를 감싸고 뒷면까지 여며지는 경우, 그리고 깃의 부분이 겹쳐지지 않고 앞쪽에서 마주 여며지는 상태인 對襟등의 종류가 있다. 그런데 카프탄 형식은 앞이 절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며지는 형에 따라서나 옷을 구성할 때 여러가지 모양이나 방법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지적한 카프탄은 여밈에 있어서 合襟모양인 對襟의 형식으로 생각된다. 圖3은 漢代의 經錦으로 만든 서역양식의 카프탄이다. 이 카프탄은 앞이 切開되고 合襟이며 옆솔기에 무가 봉재되어 있다. 그리고 키질(Qizil)벽화의 供養者가 착용한 카프탄(圖4)이며, 圖5는 高昌(Turfan) 배재크릭벽화로써 발까지 덮은 길이의 카프탄을 위글(Uighur)의 귀족이 착용한 것으로서 襟은 앞이 터진 合襟이며 깃부분에는 화려한 裝飾襟이 보인다. 반면에 우리나라 袍는 冠服을 제외한 便服袍는 모두 直領이며 襟도 合襟이 아닌 交襟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便服袍의 類型을 카프탄 型式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直領交襟에 속하는 類型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기후·풍토적인 측면등 옷의 기능적인 역할과 문화적·자연적인 발생에 의하여 전개되고 변천·전승되므로, 지역간 민족간 또는 시대에 따라



圖3. 經錦으로 만든 카프탄
출처: 中國古代服飾研究



圖4. 供養者가 착용한 카프탄(600-650년)

출처 : 唐代의服飾



圖5. 위 글의 귀족이 착용한 카프탄

출처 : Ancient Arts of Central Asia

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각 文化마다 독특한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Ⅲ. 袍의 源流

스키타이의 文化는 본거지인 흑해연안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변경에까지 파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동부지역은 스키타-시베리아(Sch-
ytho-Siberia)로 일컬어지는데 그 東端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스키타이계문화(미누신

스크, 스키타이, 綏遠文化가 뒤섞인 複合文化)가 들어오게 되었던 시기는 B.C 700~B.C 600경부터¹⁴⁾ 보고 있다. 따라서 스키타이계 文化를 소유하게 된 고대 한국문화는 그 후 漢武帝의 朝鮮 侵入에서부터 중국의 철기문화로 직접 받아들여지게 되어 중국 문화권으로 방향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說¹⁵⁾이다. 우리나라는 철기시대 이전까지는 北方文化, 즉 스키타이계 文化의 영향하에 있으므로 고대 한국 文化의 源流가 중국의 漢文化가 북방문화, 즉 스키타이계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고대 한국문화에서 스키타이계문화의 영향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遺例는 복식문화로 구·신석기시대의 원시적인 복장형태에서 벗어나 보다 발달된 복장 구조를 보유하고 있던 스키타이계 복식이 들어와 고대 한국 복식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스키타이계 복장은 襦袴制로서 王國維가 말한 胡服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⁶⁾ 胡服(북방유목기마 민족의 옷)이란 말은 중국 史書 사마천의 史記에서 처음 나온다.¹⁷⁾ 즉 趙(中國戰國時代의 하나, B.C 403-B.C 221)의 武靈王 19년(B.C 307), 王이 北에는 燕나라, 東에는 胡의 우환이 있고 국방은 미비하니... 이때 胡服을 채용해 騎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국력을 키워야 하므로 신하들에게 胡服을 내려 朝廷에서 착용하게 하는 胡服令을 시행하였다. 또한 史記 朝鮮傳에서 燕將 衛滿이 朝鮮에 入國할 때(B.C 194) 착용한 복장은 중국의 복장과는 다른 北方 胡族系統의 의복¹⁸⁾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기원전후기의 흉노복으로 생각되는 遺品이 노인우라(Noinula)에서 漢代의 遺物과 함께 출토되었다. 그 복장의 형태는 漢의 복장과 다른 胡服계통으로 그 源流는 스키타이계 복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스키타이계 복장을 착용한 모습은 B.C 4세기경의 Kuloba 出土壺에 새겨진 人物像(圖6)과 B.C 4세기경의 Frequent Barrow 出土壺에 새겨진 夫婦像(圖7) 그리고 B.C 3세기경의 Kuban Kurdzhips 出土 Sarmatian 像(圖8)등에서 上衣와 下衣로 구성된 窄衣型으로 左襟이며 革帶를 하고 있는 복장이다. 이와같이 몸에 꼭끼는 형태의 스키타이의 복장은 騎馬등 활동에 편리한 의복으로서 점차 폭이 넓어져 여유있는 형태로 변했을 것이며 허리에서 무릎선사이에 오는 上衣의 襦와 그 위에 表衣로서의 長襦도 防寒과 儀禮用



圖6. 스키타이 戰士像
B.C 4세기, Kuloba 고분출토
출처: 아시아 文化史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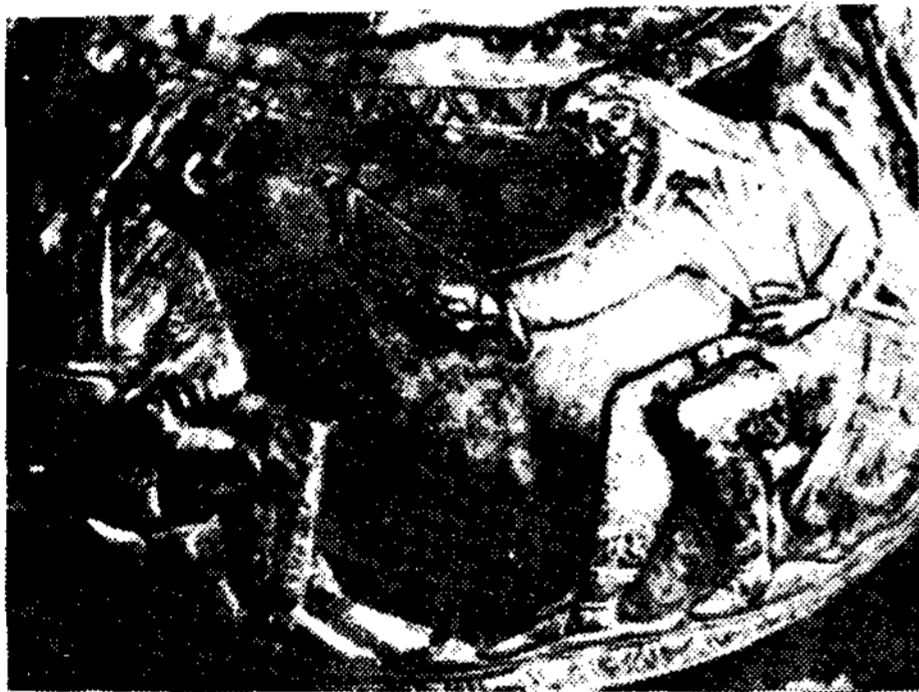


圖7. 銀製壺에 그려진 夫婦像
B.C 4세기 스키타이 Frequent-Barrow 출토
출처: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圖8. Sarmatian像
B.C3세기, Kuban Kurdzhips 출토
출처: The Royal Hordes

을 겸해 덧입게 되었을 것¹⁹⁾이다. 우리나라 古墳壁畫 人物圖중에 우리 전통적인 固有한 복장인 上下衣의 窄衣형식을 착용한 스키타이계 복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固有의 上衣는 左襟이고 筒袖로 길이는 허리에서 무릎사이의 臀部線 정도이다.(圖9) 이와같은 上衣類의 모습은 스키타이 복장을 나타내 주는 B.C 4세기경의 Frequent Barrow 출토 銀製의 壺에 그려진 夫婦像²⁰⁾(圖7)에서 보인다. 즉 上衣는 무두질한 가죽으로 만든 褙대를 하고 襟, 裾, 袖口에 넓은 장식을 대고 左襟 筒袖로서 우리나라 上衣의 源形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袍도 우리나라 기본 복장의 하나인데 이는 고유한 저고리(襦)와 그 형태는 동일하며 단지 길이가 길어진 것이다.



圖9. 高句麗 雙槨塚羨道西壁騎馬人物
출처: 韓國美術全集4

이와같은 형태의 의복에 관한 기록은 「唐書」東夷傳新羅條에 婦長襦, 「周書」列傳異域百濟條에 婦人衣似袍 가 있다. 長襦에 대해서는 「方言」四에 보면 '褒明謂之袍'라 있고 그 注에는 郭璞이 '廣雅云 褒明 長襦也'라 하여 長襦는 袍類에 속하는 것²¹⁾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王宇清은 衿를 설명하면서 廣韻에서 인용하면서 '衿 長襦也'라 하여 衿 즉 長襦는 襦와 袍사이의 中間길이²²⁾로 보고 있다. 또한 周書의 '衣似袍'도 長襦에 속하는 袍類로 表衣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袍類에 속하는 長襦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인다. 벽화에 나타난 袍는

襦袴 혹은 襦裙위에 입혀진 옷으로서 기본적인 형태가 저고리와 같고 다만 그 길이가 길어진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舞踊塚主室東壁廚房(圖10)과 舞踊圖에서 착용한 袍類는 중국의 袍에서 많이 보이는 땅에 끌리면서 넓어지거나 자락(裾)의 길이가 다른 형태가 아니라 襖의 부분 정도로 겹쳐지는 直領交襟式과 靴와 袴 그리고 裳袴까지 보이는 정도의 길이로 무릎과 발뒤꿈치사이의 長襦에 속하는 것이다.



圖10. 高句麗 舞踊塚主室 東壁廚房女人
출처: 韓國美術全集4

또한 袍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로서 520-530년대의 梁職貢圖에 묘사된 百濟使臣圖(圖11)가 있다. 이 백제사신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사신은 약간 左向의 자세로 서 있다. 端雅한 용모에 右襟의 大袖袍로서 길이는 무릎을 덮을 정도에 그 밑에 太口의 禪을 입은 것이 보이며 신(履)을 신고 兩手는 모아 있다. 黑白으로 된 그림에서는 그 색을 가릴 수는 없는데 옷깃(領) 소매(袖口) 단(裾)에는 禪이 돌려 있다. 冠帽부분은 2條의 끈이 側面에 달려 턱밑에서 매고 있는데 上部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前面에는 무엇인가 세워져 있는 듯하다. 北史 百濟傳에는 백제에 16品の 官等이 있고 제1품 佐平에서 제6품 奈率이상의 冠에는 銀花를 장식하였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신도의 前面에 이와같은 花飾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사신이



圖11. 백제사신이 착용한 袍
출처: 中國의博物館 제5권

입고 있는 袍도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長襦型의 袍로서 領 袖口 裾부분에 襖이 있는 直領交襟이다. 신라인의 북식도 「北史」 列傳 新羅條에 의복도 고구려 백제와 동일하므로 고구려 고분 벽화나 梁職貢圖의 백제 사신도에 표현된 袍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圖12. 스키타이의 黄金人物像
출처: アジア文化史研究

그런데 長襦 형태의 의복은 胡服系統에 있어서 防寒用이나 儀禮服으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B.C 4세기경의 遺物인 스키타이의 Kuloba 출토 黃金人物像(圖12)에서 볼 수 있다. 이 황금인물상은 스키타이의 왕으로 보이는데 착용하고 있는 表衣는 左襟의 長襦형태로 추정되고 있는데 杉本正年은 筒袖의 短衣와 袴의 窄衣型의 二部樣式을 입고 그 위에 寬衣型의 자락이 긴 上衣를 착용한 것²³⁾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長襦의 袍보다 길이가 짧기는 하나 같은 형태의 복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스키타이의 복장에서는 袍類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유목, 기마생활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匈奴에 있어서도 노인우라출토품에 중국식 袍와는 다른 長襦의 형태²⁴⁾(圖13)가 遺存하고 있다. 이것은 길이가 117cm로 무릎을 덮을 정도이다. 앞과 뒤 모두 중심선에 선이 보여 二幅씩 사용하였고 肩 袖口 裾등에 黑豹의 毛皮가 있고 안쪽에도 毛皮가 붙었던 흔적이 있어 防寒用과 儀禮用을 겸한 上衣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실측도(圖14)를 보면 長襦(圖13)와 다른 遺品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길이가 117cm인 것으로 미루어 동일 遺品으로 믿어진다. 아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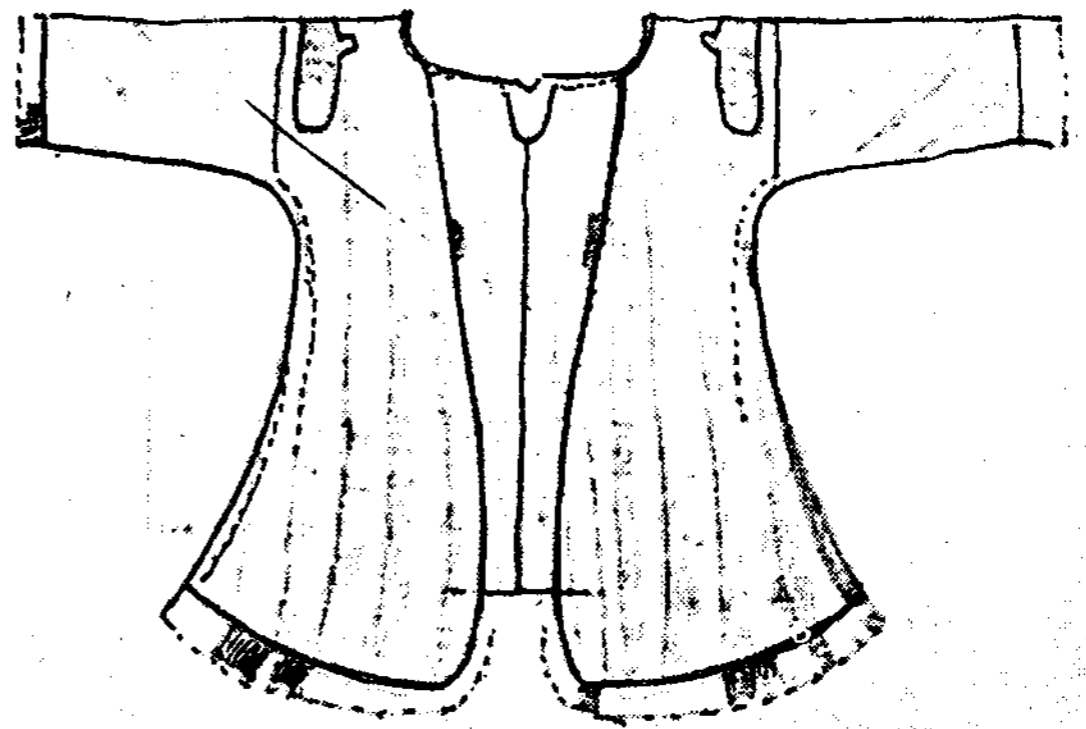


圖14. 長襦實測圖

출처: 蒙古ノイソウラ發見の遺物

실측도를 그릴 때 길이의 비율이 다소 짧게 그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이 실측도에는 좌우가 同形으로 앞의 자락부분이 약간 등글러져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長襦와 조금 차이가 있으나 直領交襟式이며 筒袖에 襟이 둘러져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長襦의 형태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우리나라 襦의 형태와 같은 直領交襟式이며 襟이 있는 모습은 이즈크 古墳에서 출토된 Saka族의 上衣²⁵⁾(圖15)에서도 보인다. 이 上衣의 遺品은 左襟筒袖로서 襟 裾 袖 袖口에 둘러져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袍는 直領交襟式의 長襦 형태로서 스키타이계 복식의 源流에 속하는 襦에서 발전된 防寒用이나 儀禮用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韓國의 古代 미술품이 스키타이 문화에 강한 영향



圖13. 絹製長襦

출처: The royal Hordes



圖15. Saka族 上衣

출처: 中央アジア遺跡の族

을 받고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²⁶⁾이다. 이와같은 古代의 광범위한 문화의 맥락속에서 생각할 때 袍와 스키타이 복식과의 연관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IV. 結論

우리나라 古記錄에 袍라는 말은 보이지만 어떤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袍는 긴 저고리, 소매를 넣어서 만든 옷, 남녀가 입을 발목까지 닿는 긴옷으로 衣와 裳이 붙어 緣이 있는 옷, 평상복의 겹옷 그리고 옷앞의 깃등으로 중국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古代의 袍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착용되다가 의례적인 것으로 변하여 表衣의 대명사로서 外延의 개념이 우리나라 古代 기록에도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固有의 袍는 直領交襟에 속하는 유형으로 이는 각지역의 기후와 풍토적인 측면등 옷의 기능적인 역할과 문화적·자연적인 발생에 의해 전개되고 변천·전승되며, 지역간 민족간 또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며 각 문화마다 독특한 유형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袍의 원류는 스키타이계 복식으로 襦에서 변천된 長襦로 방한용이나 의례용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直領交襟式 長襦형태의 袍는 삼국시대이전부터 착용되었다는 기록이 문헌에 보이며, 고구려 벽화와 梁職貢圖에 묘사된 백제사신도에서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 1) 金東旭, “韓國服飾史辨證(32)” 「박물관 신문」 제164호
- 2) 諸橋轍次(1968), 大漢和辭典 제10권, P200
- 3) 王宇清(1969) 「中國服裝史綱」 台北: 中華大典編印會, PP. 59~116
- 4) H.H. Hansen(1950) 「Mongol Costume」, Gyl-dendalske Boghandel Nordisk Forlag, P.186
- 5) 小川安朗은 ① 腰布型(loin cloth type) ② 卷垂型(drapery type) ③ 貫頭型(poncho type) ④ 前開

型(Caftan type) ⑤ 體形型(tunic type)

Hans Mutzel은 ① 남방형(腰衣에서 drapery) ② 북방형(shirts, tunic) ③ 동방형(caftan) ④ 서방형(poncho) A.L. Kroeber은 ① Greco-Roman 풍의 비재봉형 ② Oriental풍의 재봉관의 ③ European풍의 재봉밀착의 이외에도 C.H. Stratz, Muller Lyer, Flugel, Boucher, Roach의 분류가 있다.

- 6) 石山彰(1982), 「服飾辭典」 東京, P136
- 7) H.H. Hansen(1950), P. 186
- 8) 한국, 일본, 동투르키스탄, 중국의 옷을 모두 caftan이라고 명명
- 9) 杉本正年(1979) 東洋服裝史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PP.79-90.
- 10) 三才圖會, 襪衫條 참조
- 11) 原田叔人(1970) 「唐代之服飾」 東京: 東洋文庫
- 12) 王宇清(1969) 「中國服裝史綱」 台北: 中華大典編印會
- 13)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 14) 金元龍(1973) 「韓國考古學概說」 서울: 一志社, P.79
- 15) 金元龍(1976) 「韓國文化의 起源」 서울: 探求堂, P.49
- 16) 金東旭(1982) “韓國服飾의 基本構造”, 「韓國의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P.9
- 17) 司馬遷(B.C 104), 史記十三卷, 四十三
- 18) 앞글
- 19) 金文子(1984)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研究” 梨大博士學位論文, P.77
- 20) M.I. Artamonov(1966), 「Treasures from Scythian Tombs」, trans kupriyannova, London: Thames & Hudson, 1969, P.65
- 21) 林巳奈夫(編)(1976) 「漢代之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P.2
- 22) 王宇清(1969), P.87
- 23) 杉本正年(1979) PP. 385-386
- 24) E.D.Phillips(1965) 「The Royal Hordes」 London: Thames & Hudson, P118
- 25) 加藤九祚(1979), 「中央アジア遺跡の旅」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PP. 56-58

- 26) 權寧弼(1985)“新羅人の美意識”,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第6輯, PP.236-256